

# 공식 모국어 없는 미국의 고민

‘이민자의 나라’로 시작한 미국이 국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멜팅팟’(melting pot·인종과 문화의 융광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지만 한편에선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스페인어 사용금지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국어(공식 언어)가 없다 보니 스페인어 사용을 두고 사람들이 편 가르기에 나선 거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 라틴계 미국이주민인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과 증오의 정치판을 키웠다. 2016년 당시 대선 후보이던 트럼프는 유세 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영어를 써야 합니다. 영어를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라고 주장했고 “베드 움브레(bad hombre·나쁜 놈을 뜻하는 비속어)를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히스패닉 이주를 막기 위한 국경장벽 강화를 내걸어 인기를 끌었다. 극우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를 중심으로 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를 적극 지지했다

미국에서 공식 언어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제26대 대통령·1901년 9월~1909년 3월 재임)은 1919년 죽기 전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 바로 영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도 미국 연방에선 영어가 공식 모국어가 아니다. 미국 51개주 중에서 32개주만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고, 루이지애나·뉴멕시코주와 하와이에서는 공식 언어가 둘이다. BBC에 따르면 멕시코 접경지인 미국 뉴멕시코의 앨버커키 소재 ‘시엔아구아스’ 학교에서는 학생 90%가 스페인어를 쓰고 수업도 스페인어로 이루어진다.

히스패닉은 미국 내 6,000만여 명(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을 점하는 거대 인구집단이지만 가장 가난한 집단으로 통한다. 지난 6월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히스패닉 연간 수입은 평균 2만5,000달러이고 정규직은 3만4,000달러다. 전체 평균으로는 아시아계(5만4,000달러), 백인, 흑인, 히스패닉 순이다. 이런 까닭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히스패닉 사이에서는 ‘성공하려면 스페인어를 숨기고 영어를 쓰라’는 조언이 오간다고 한다. 차별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주민도 있고, 다문화 배려 정책과 규제의 틈바구니 덕을 보는 이주민도 있고 이주민 폭력배도 있다.

# 11월 열리는 국제정치 최대 이벤트 연임 VS 정권교체

오는 11월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3억 명의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75억 명이 지켜볼 만한 해 국제정치 최대 이벤트이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나, ‘절치부심’ 민주당이 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느냐의 싸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득표에서 289만표(2.1%포인트)를 뒤지고도 선거인단 확보 싸움에서 이겼다. 이번에도 팽팽한 싸움이 예상된다.

지난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대이다. 주요 언론과 식자층의 못매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득표율에 육박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상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열릴 탄핵심판에서는 ‘기각’이 확실시되지만, 추가 폭로와 민주당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응집력도 강하다.

민주당은 10여명의 후보가 난립 중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스시장이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출전 준비를 마쳤다. 확실한 ‘트럼프 대항마’ 가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인 동시

에 기회다. 민주당 경선이 미 전역의 관심을 끄는 흥행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와 1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후보군이 3~4명으로 좁혀지면, 3월3일 16개주에서 경선이 펼쳐지는 ‘슈퍼 화요일’에 1~2명 유력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2000년 앨 고어, 2004년 존 케리, 2008년 버락 오바마,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등 최근 20년 동안 이곳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6월 초까지 주별 경선이 마무리되고 7월13~16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가 공식 선출된다.

역대 대선을 보면 ‘스윙 스테이트’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주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와 전통적 ‘캐스팅보트’ 플로리다주가 승패를 가를 지역으로 꼽힌다.

국제질서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의 가속화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비정상적 정상화’ 선언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북·미 비핵화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1월 6일 ~ 1월 12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 style="text-align: center;">남자 길일 : 6, 7, 10, 11</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취</b></p> </div> <p>땅 위에 바람이 불어오면 주위를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켜보아야 하듯이, 세상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포용성,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 애를 쓰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기겠으나,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본위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 style="text-align: center;">여자 길일 : 8, 9, 12</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말</b></p> </div> <p>밖은 허허지만 속은 실한 형국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건성을 기울인다면 후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잃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추운 겨울 뒤에는 훈훈한 봄이 오듯 나쁜 시기는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두렵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표소</b></p> </div> <p>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람은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켜보아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가지이 중요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양</b></p> </div> <p>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경쟁이 심해지고 혼란이 생기면, 지도자는 강직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 이를 본받아 스스로 자만심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복록이 따를 것입니다. 내부 관리에 충실하고 성심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협력자나 조연자가 필요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범</b></p> </div> <p>순풍에 돛단 격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로서, 물위에 바람이 불어오듯이 상쾌한 기분으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마음속의 근심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일,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건실한 마음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원숭이</b></p> </div> <p>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장래의 더 큰 결실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에는 노고가 따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로써 상대를 기쁘게 만들고, 또한 반드시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손해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리낌 없이 봉사하고 회사하게 되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토끼</b></p> </div> <p>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에 힘쓰고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평소 애 정적인 교분을 두텁게 해두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미리 알아서 해결해두는 것이 좋고 매사에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닭</b></p> </div> <p>지금은 하던 일을 지키고 스스로의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격입니다. 산이 한곳에 머물러 있듯이, 부동심으로 지조를 지키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장래를 위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상책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진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염</b></p> </div> <p>고기와 용이 넓은 바다와 강을 만난 격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왕성해지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왕성한 활약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질러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장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세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개</b></p> </div> <p>지금은 확실한 전망을 세우기가 곤란하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계몽을 받아야 하듯이, 훌륭한 선배나 윗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자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므로 장래를 바라보고 산처럼 무겁게 덕을 쌓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돼지</b></p> </div> <p>정성으로 노력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나 공동사업을 하면 특히 유리합니다. 학생은 문서시련논문에서, 직장인은 경영교섭에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입니다. 혹, 일시적으로는 성과가 없더라도 훌륭한 협조자를 구하여 성심껏 노력하면 반드시 발전하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돼지</b></p> </div> <p>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니, 가문 대지에 곧 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